목포시 '청년스마트 도시 구축' 미래인재 양성

4차산업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 코딩 등 1인당 최대 150만원

목포시가 청년스마트도시 육성을 위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4차산업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에 나섰다.

시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1인 최대 1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7일 목포시에 따르면 4차산업 관련 청년 구직 능력 향상과 자격증 취득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3년 4차산업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4차산업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은 빅데이터, 코딩, AI 등 4차산업 관련 국가자격증 교육비 중 자기부담분 80프로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중 2023년1월1일 이후 4차산업 관련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자이다.

지원 신청은 28일부터 시작해 예산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목포시청 스마트정보과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gcvb5678@korea.kr)을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이번 신규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4차산업에 최적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우리시 청년들의 직업 전문성을 제고해 청년스마트도시 목포의 미래인재 양성에 목포시가 디딤돌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목포시와 스마트인재개발원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K-디지털플랫폼 공모사업' 에 선정돼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

지역 내 학생, 청년, 미취업자 등을 위한 스마트인재교육센터를 구 청호중에 구축하고 인공지능·로봇·빅데이터 관련 산업현장 맞춤형 훈련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목포=정기찬 기자

'개그쇼-개그쟁이' 기획 공연 내달 22일 목포문화예술회관

목포시는 오는 7월22일 오후 3시와 7시 30분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개그쇼-개그쟁이(포스터)' 기획 공연을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개그쇼-개그쟁이'는 KBS 개그콘서트 출신 개그맨들의 개그를 직접 보며 남녀노소 누구나 웃고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관객과 함께 코너를 만들어가는 무대를 마련해 건강한 웃음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공연에는 안어벙으로 유명한 개그맨 안상태씨와 탄탄한 코믹연기가 일품인 송영길, 정승환, 박휘순, 김태원, 이성동, 김영희, 김회경, 김자미씨 등이 출연한다.

B-Boy와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해 수준높은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관람 대상은 만 8세 이상이며, 관람료는 R석(1층) 1만원, S석(2층) 5000원으로 지정 좌석제를 시행한다.

20인 이상의 단체 예매의 경우 30%가 할인되고 단체 100인 이상이거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에는 50% 할인 적용받는다. 티켓 예매는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에서 또는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가능하다.

이번 공연은 '2023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선정에 따라 공연비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받아 열린다.

목포=정기찬 기자

강진 야생수제차 품평대회 성료 녹차 등 종류 다양화

강진차의 전통성을 이어가는 '제16회 강진 야생수제차 품평대회'가 지난 22일부터 이틀에 걸쳐 강진 아트홀에서 열렸다.

27일 강진군에 따르면 야생수제차품평대회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난달 23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접수된 수제차 60점에 대해 1차 예비 심사와 2차 본심사로 나눠 진행됐으며, 차의 외형, 색상, 향, 맛, 우린 잎의 상태를 점수화해 최종 수상작을 결정했다.

이번 대회는 추민아 남부대학교 교수가 대회 심사위원장을 맡았고, 강순형 한국명차품평대회 감평 위원장, 김영애 사)세계홍차연구소 소장, 서난경 한국차문화협회 전남지부장, 김은혜 보성녹차연구소 차 연구원, 강귀원 사)초의문화연구원 제다분과연구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다.

300만원 상금이 주어지는 대상은 녹차를 출품한 조영례 씨(강진읍)가 차지했다. 최우수상 녹차는 이선애 씨(해남군), 발효차는 박세라 씨(광주시)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이홍렬(강진읍)·김현정 씨(광주시), 장려상은 권정안(강진읍)·이송애(강진읍), 특별상에 김정신(광주시) 씨, 박성수(영암군) 씨가 각각 선정됐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야생 수제차 품평대회가 차문화의 대중화에 앞장서는 대표 행사가 되길 바란다"며 "품평회와 더불어 강진 차의 매력과 우수성이 전국적으로 더 널리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선진 교통문화도시 목포 만들기 목포경찰, 19개 기관과 협약

목포경찰서(서장 이준영)는 지난 26일 2023년 상반기 그간 추진했던 교통 정책에 대해 소개 했다고 27일 밝혔다.

목포경찰서는 '시민 중심의 교통안전 활동'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지난 2월 1일 목포경찰서장, 목포시장, 목포교육장, 목포소방서장,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 지역본부장 및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 등 총 19개 기관·단체가 모여 '선진교통문화 도시 목포 만들기 범시민 협의회(이하 범시민 협의회)'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범시민 협의회는 목포시 교통 안전 문화 개선을 위해 매달 실무자 회의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현재까지 목포시민 1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13회를 실시했으며 주정차 문화, 안전모 착용·2인 탑승금지·신호지키기 등 안전한 전동킥보드 운행 등 올바른 운전 습관에 대해 집중 홍보를 진행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강진군이 관내 상습 침수 지역에 펌프를 설치하고 배수 시설 점검을 강화한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 2억원 투입 여름철 집중호우 대책 마련

상습 침수지역 펌프 설치

올여름 '슈퍼 엘니뇨'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강진군이 상습 침수 지역에 펌프를 설치하고 배수 시설을 점검하는 등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27일 강진군에 따르면 만덕 간척지 내 유리온실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엔진 양수기 설치를 시작으로 관내 7개소에 군비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본격적인 우기 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주택, 시설하우스 등 상습 침수 지역으로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우선 선정했으며, 사전 대응을 통한 배수시설 정비로 재해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관내 설치된 배수펌프장 7개소와 배수 시설을 점검 완료했으며 수방자재 및 인력배치 현황, 비상연락망 정비를 통해 집중호우 대비에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군은 50ha 내외의 대규모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해 국도비 사업을 확보해, 점진적으로 농경지 환경을 개선해갈 계획이다.

강진원 군수는 "올여름 '슈퍼 엘니뇨' 영향으로 많은 비가 전망되고 있어 재해 예방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배수시설을 정비했다"며 "여름철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완도 해산물 우수성, 해저 맥반석·해수성분 영향"

순천대·전남대 교수팀 연구 해수 탄소 흡수량 가장 높아

완도산 해산물의 우수성은 해저의 맥반석 기반암과 갯벌, 해수 성분 등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완도군의 의뢰로 순천대 김정빈 교수와 전남대 김태훈 교수 연구팀이 수행한 '완도지역 해수 성분과 해산물의 영양학적 관계' 연구용역 결과 확인됐다.

27일 완도군에 따르면 연구팀은 최근 완도지역 연안 해수의 화학적 성분을 분석해 해수와 해산물의 영양학적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연구팀은 완도의 해산물 양식장 주변 해수를 대상으로 계절별 총 4회 영양염류와 미량금속 성분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완도지역 해수의 유기물(유기탄소)이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탄소 흡수량이 가장 높았다.

완도 해산물의 원소 함유량 분석 결과 갯벌과 암석의 지화학적 영향으로 칼륨, 나트륨, 아연 함량이 높았으며 전복과 바지락 채취 지역의 암석과 갯벌에는 칼륨과 나트륨, 철, 아연 등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역과 다시마를 비롯한 해조류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돼 있고 바지락과 꼬막은 철과 아연의 함량이 높았다.

완도해역 대부분 정화 작용이 우수한 맥반석으로 형성돼 청정한 바다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해조류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염류를 많이 생성하고 있는 점도 확인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완도 해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알려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해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해산물과 해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완도=최경철 기자

330명에 장학금 지급 신안군, 4억4000만원

(재)신안군장학재단(이사장 박우량)은 신안군의 미래를 이끌 인재 발굴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장학생'을 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이사회를 개최해 2023년도 상반기 장학생을 확정하고 신안군 초·중·고·대학생 등 330명 에게 장학금 4억4000만원을 지난 23일 지급했다.

군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대학 장학생을 전원 선발 했다.

박우량 이사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대외적 여건으로 학생들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재육성 장학금이 자녀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학부모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낙도 장학생 장학금 분야를 신설 지원하였으며, 장학생 요건을 부모, 학생 주민등록기준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신안=홍일갑 기자